



‘친환경 유기농 와인의 대부, 론 와인의 명가’

엠 샤푸티에 벨르뤼스 꼬뜨 뒤 론

M.Chapoutier Belleruche Cotes du Rhone

지역	프랑스 > 론 > 꼬뜨 뒤 론		
포도품종	그르나슈 시라		
알코올	14%	용량	750ml
등급	AOC	시음 적정 온도	15-18℃
테이스팅 노트	강렬하고 프루티한 아로마가 지배적이며 가벼운 후추 향이 곁들여 진 매우 매력적인 아로마를 가지고 있다. 과실미가 넘나들면서도 강렬한 팔레트가 구운 향과 함께 잘 어우러지며 부드럽고 섬세한 탄닌감 역시 일품인 와인이다.		
페어링 TIP	붉은 육류/ 익힌 채소/ 단단한 치즈/ 훈제,염장 음식/ 밀가루 음식		

#프랑스



제품설명



M.샤푸티에의 많은 포트폴리오 중 가장 기본이자 중심이 되는 트레이디션 레인지는 그 와인의 가지 수도 매우 다양하다. 과실미가 풍부하고 부드럽기까지한 매력적인 론 와인을 가장 쉽게 마실 수 있는 와인을 대중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며 여러가지의 매력을 가진 아로마와 팔레트를 선사함으로써 론 와인의 매력에 푹 빠지게끔 하는 레인지이다.

수상내역



2023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0점
2022빈티지 로버트 파커 Robert Parker 88점
2022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0점

와이너리



M.Chapoutier에서는 와인 양조 시 제일 중요한 가치를 ‘떼루아에 대한 존중’ 이라고 보고 있다. 포도가 자라나서 와인에 묻어날 때 떼루아의 특징과 그 당시 빈티지의 기후를 고루 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어 포도와 떼루아의 고귀함이 외부의 간섭을 최대한 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샤푸티에는 1991년을 시작으로 유기농법에 이은 바이오 다이내믹 농법을 차용하여 현재 모든 샤푸티에 산하의 포도밭의 포도들은 바이오다이내믹(Biodynamique)농법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미셸 샤푸티에는 전 세계의 몇 되지 않는 바이오다이내믹 농법의 선두주자로 매우 널리 알려져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누워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